

비주얼 씹킹(Visual Thinking)을 적용한 초등 음악 감상 지도 방안 연구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Elementary Music Appreciation Using Visual Thinking

김 은 주*

Eun Ju Kim

초록 본 연구는 ‘생각의 시각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주얼 씹킹(Visual Thinking)기법을 적용한 효과적인 초등 음악 감상 수업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비주얼 씹킹의 개념과 수업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음악 감상 수업에서 비주얼 씹킹의 의미를 살폈다. 이어 비주얼 씹킹을 적용한 음악 감상 지도 단계를 설정하고 각 학년군별로 비주얼 씹킹을 적용한 수업 예시안을 개발하고 수업을 수행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이를 통해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 비주얼 씹킹 적용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초등음악교육, 초등음악 감상 교육, 비주얼 씹킹 감상 수업, 감상 수업 예시안, 음악 감상 표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eek an effective method for elementary music appreciation class using the visual thinking technique that focuses on “the visualization of thinking”. To this end, this research reviewed the concept of visual thinking and the method for applying it to class. Subsequently, it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by establishing the stages for music appreciation teaching using visual thinking, by developing a class sample by applying visual thinking to each class group, and by performing the class. This study showed that positive effects could be sufficiently exercised by the application of visual thinking to elementary music appreciation class.

Key words: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usic appreciation education, visual thinking music appreciation classes, music appreciation classes, music appreciation and express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mileej1985@naver.com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1.51>

I. 서론

최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교육 안팎에서도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혁신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자연과학의 기술과 인문과학의 상상력의 조화는 필수로 여겨진다(Kim et al., 2018).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암기하여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발휘하여 방대한 지식을 분별하고 재구성하여 구조화함으로써 기존의 것에서 발전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다. 이러한 능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교육을 향한 사회의 요구는 교실 수업의 풍경도 많이 바뀌어 놓았다.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들에게 ‘역량’, ‘융합’, ‘창의성’, ‘재구성’ 등의 용어는 매우 익숙해졌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은 방대한 지식을 막연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알고 있는 것이나 알게 된 것을 자기화시키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교실 속에 들어온 교수학습 기법 중 하나이다. 이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자신과 소통하고 그 표현 결과물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지식을 확장시켜 가며 학습한 내용을 자기화 시키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주얼 씽킹 기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 감상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흥수(Lee, 1990)는 음악 감상이 ‘음악적 제 현상을 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적 심상을 구축함으로써 악곡의 예술적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을 감상하는 일은 음악의 구성 요소를 분별하는 것,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것, 요소들의 조직 원리를 지각하는 일부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석문주(Seog, 2015)는 초등학교 음악 감상 활동은 학교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기초적인 음악 활동이며, 학교 음악 감상 학습에서는 단순히 음악을 듣

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집중하여 듣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하여 '탐구(explore)'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악 감상 학습의 속성은 단순히 음악을 귀로 듣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감각과 이를 조직하고 엮어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생각의 시각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비주얼 씽킹 기법과의 접목이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우선 비주얼 씽킹에 관한 선행 연구물을 살펴보았다. 비주얼 씽킹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교과별로는 역사 교육(Kang, 2018; Kim & Kim, 2018; Lee, 2019; Oh, 2019), 수학 교육(Ko, 2019; Kim, 2018), 과학 교육(Han, 2019; Kim, 2018), 국어 교육(Sim, 2019), 미술 교육(Park, 2018), 진로 교육(Song & Ma, 2018),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교육(Lim et al, 2016)과 관련된 연구물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음악 교육에서는 비주얼 씽킹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국악 수업 방안을 제시한 김현정(Kim, 2018)의 연구가 있었으며, 음악 감상 수업 영역에서도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연구물들(Yang, 2018; Joo, 2018; Park, 2019)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비주얼 씽킹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용희(Kim, 2018)의 연구와 같이 음악과 미술 연계 수업을 바탕으로 넓은 맥락에서 음악의 이해를 도모한 연구물 또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주얼 씽킹을 교과 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불과 1~2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다 다양한 대상, 관점, 방법에 관한 시도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 감상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비주얼 씽킹의 개념과 수업 단계 및 레이아웃 유형에 관하여 다른 여러 선행 연구물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등 다양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음악 감상 수업에서 비주얼 씽킹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수업 단계를 구안하고 이를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안 예시안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의미와 한계를 살폈다.

II. 이론적 배경

1.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1) 비주얼 씽킹의 개념

루돌프 아른하임(1979)은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무엇을 구상할 때 이미지의 형태로 떠올린다고 말하면서 생각과 이미지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에, 정보의 형태 중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인포그래픽(Inforgraphic) 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Kim, 2019). 비주얼 씽킹은 생각과 이미지의 이러한 속성에 근거하여 나타난 것인데, 이는 원래 기업체의 기획안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의 기술로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자기 개발 목적을 위한 생각 정리 기술로 주목받다가, 후에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교실 수업 안에 수용된 경우이다(Kim & Kim, 2018). 이러한 비주얼 씽킹의 개념에 관해서는 비슷한 여러 주장이 존재한다.

비주얼 씽킹의 정의에 관하여 온은주(On, 2018)는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시각 자료들을 글과 그림으로 꺼내서 생각하도록 돕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정진호(Jeong, 2019)는 ‘글과 그림을 함께 이용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해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치갑 외(Woo et al., 2016)는 비주얼 씽킹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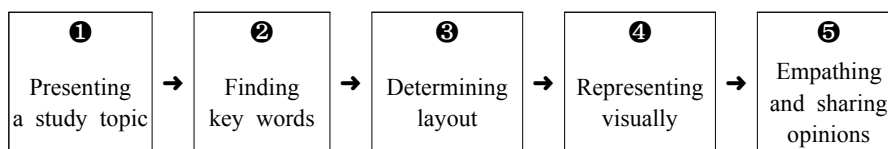
- 생각과 정보를 글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린) 그림으로 표현·기록하는 것이다.
- 글, 도형, 기호, 색상 등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으로 생각을 체계화하여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다.
- 마음의 눈과 상상력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 시각적 표현으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사고이며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Woo et al., 2016 p.12).

비주얼 씽킹의 개념은 정의를 내린 사람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정보)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비주얼 씽킹을 ‘생각의 시각화’

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음악 감상 수업에 비주얼 씽킹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각’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었거나 만들어진 음악적 아이디어로, ‘시각화’는 글, 그림, 기호를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비주얼 씽킹 수업 단계

비주얼 씽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업에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할 때에는 대상, 교과, 내용에 따라 수업의 어느 단계에서 비주얼 씽킹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치갑 외(Woo et al., 2016)은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수업에서 유의할 점으로 ‘학습 주제에 알맞은 레이아웃의 활용(Use layouts that match your learning topic), Visual Thinking의 시각 언어 연습(Practice of Visual language for Visual thinking), 학습 주제의 시각적 표현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나타내기(Presenting visual representations of learning topics in storytelling form),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핵심 주제와 단어 추출하기(Extract key topics and words before presenting the lesson visually)’ 등을 들면서 비주얼 씽킹 수업 단계를 [Figur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Figure 1] Teaching stages using visual thinking(Woo et al, 2016,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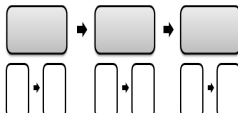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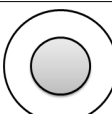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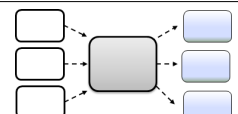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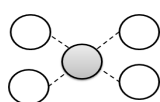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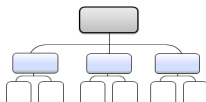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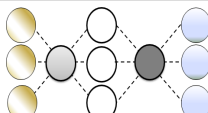
[Figure 1]에서 제시한 수업 단계를 살펴보면, ❶단계에서 제시한 학습 주제(내용)에 따라 ❷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에서 핵심 단어를 구분하고,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어 ❸단계에서는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레이아웃 형태를 정하며, 이를 ❹단계에서 다양하게 시각적 표현을 해 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❺단계는 앞선 단계에서 학습하고 표현한 내용을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1]에서 제시된 비주얼 씽킹 학습 단계는 범 교과적인 성격을 띤 것이므로, 음악 교과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교과와 수업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❸단계와 ❹

단계는 비주얼 씽킹에서의 ‘생각의 시각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비주얼 씽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유형

비주얼 씽킹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레이아웃(Layout)은 시각화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Woo et al, 2016, pp.60-123). <Table 1>은 활용 가능한 비주얼 씽킹 레이아웃 유형들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ypes of visual thinking layout

Types	Shape	Types	Shape
Finger		Flow	
Circle		Multi flow	
Bubble		Tree	
Double bubble		Window	

(1) 핑거(Finger)형

- 손 모양을 이미지화 한 것
- 손바닥 부분에 주제를, 손가락에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표현

(2) 서클(Circle)형

- 학습 주제를 정의하거나 학습 내용을 정리할 때 활용
- 가운데 서클에는 학습 주제를, 가장자리 서클에는 주제에 맞는 정보나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

(3) 버블(Bubble)형

- 학습 주제의 특징이나 성질을 묘사할 때 활용
- 가운데 버블에 학습 주제를, 주변 버블에 주제의 속성을 쓰고 시각적으로 표현

(4) 더블 버블(Double bubble)형

- 두 개의 학습 주제를 비교할 때 활용
- 학습 주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가능
- 가운데 두 개의 버블에 학습 주제 표현, 겹치는 버블에는 공통점을, 양쪽의 독립적 버블에는 각 주제의 개별 특징을 나타내어 차이점을 표현

(5) 플로우(Flow)형

- 흐름도에 기초하여 일정한 순서와 흐름을 표현할 때 활용
- 기준에 따라 흐름을 표현할 방법을 구상하고 각 단계에 따른 세부 내용을 텍스트로 적고 시각적으로 표현

(6) 멀티 플로우(Multi flow)형

- 어떤 학습 주제에 관한 원인과 결과 또는 영향과 효과를 규명할 때 활용
- 가운데에는 주제어를 작성하고, 왼쪽에는 원인을, 오른쪽에는 결과/영향/효과를 작성하여 표현

(7) 트리(Tree)형

- 여러 가지 학습 주제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활용
- 학습 주제-소주제를 제시하고 소주제별 내용을 상세화하여 표현

(8) 윈도우(Window)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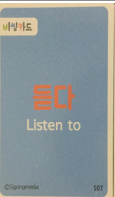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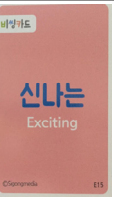
- 학습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표현할 때 활용
- 음악 감상 시 활용하면 일반적인 느낌을 글로 쓰는 데에서 나아가 감성적인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함
- 각 윈도우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그림 또는 그림+텍스트 등 시각적으로 표현

모든 교과에서 학습 주제와 목표에 따라, 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들이다. 이외에도 특별한 레이아웃의 범주로 구분되지 않는 형태의 자유형 레이아웃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각의 시각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3) 비주얼 씽킹 수업 도구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비주얼 씽킹으로 자유롭게 나타내도록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각 언어의 표현’이다. 비주얼 씽킹에서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기에 그림의 패턴을 익히거나 미술적 감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Woo et al., 2016). 그러나 생각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에서 일부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만 아니라 알고 있는 시각적 언어의 범위가 좁아 표현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주얼 씽킹을 접목한 감상 활동에서 좀 더 다양한 시각 언어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써 비주얼 씽킹 카드(Park et al., 2018)를 활용하였다.

Section	Action card			Emotion card		
Front side						
Back Side						

[Figure 2] Examples of visual thinking cards available in class
(Park et al., 2018)

[Figure 2]의 비주얼 씽킹 카드는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 학교생활에 적합한 감정과 행동에 관련된 단어를 선별하여 만들어져 있다. 카드의 앞면에는 감정, 행동을 나타내는 그림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뒷면에는 해당되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음악 감상 수업에서 이러한 ‘그림+어휘’가 드러난 카드 형태의 교구를 활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비주얼 씽킹 카드에는 50개의 행동 표현과 50개의 감정 표현이 나타나 있으며, 빈 카드를 제시하여 표현력이 뛰어난 학생의 경우 직접 그림과 어휘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비주얼 씽킹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감상한 음악과 관련된 생각을 떠올리고, 이를 그림과 어휘로 나타내는 데 있어 카드에 다양하게 나타난 어휘와 그림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 음악 감상 수업에서 비주얼 씽킹의 적용 가능성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의 성격 항에서는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음악은 소리를 매개로 한 ‘표현’과 ‘소통’의 예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 항 중 초등학교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감상 영역과 관련하여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감상이 단순히 ‘음악 듣기’가 아닌, ‘악곡의 특징에 관한 이해’를 수반하는 지적인 활동이며 더 나아가 이는 음악 감상 활동에서 학생들이 어떤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할 것인지, 이해한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및 유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취기준 및 해설

- [4음02-0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 악곡에서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알고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4음02-02]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표현한다.
 - ▶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고, 장면이나 줄거리에 어울리는 음악의 표현적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
- [6음02-01]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 ▶ 악곡에서 5~6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알고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 ▶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의 문화권에 해당하는 음악을 듣고, 악곡의 특징 및 분위기에 대해 구별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2)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실음을 통해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음악 요소와 개념은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도한다.
-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음원, **그림**, 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
-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음악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악 감상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 성취기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군의 수준에 따른 음악 요소와 개념의 지도에서 시각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음악 감상 활동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기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이 대부분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하기’, 또는 ‘감상한 내용에 관한 느낌과 분위기, 특징 등을 발표하기’ 등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감상이 단순한 수용적 활동이 아니라, 감상을 통해 파악하고 구별한 점을 ‘표현과 발표’를 통해 외부로 나타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시도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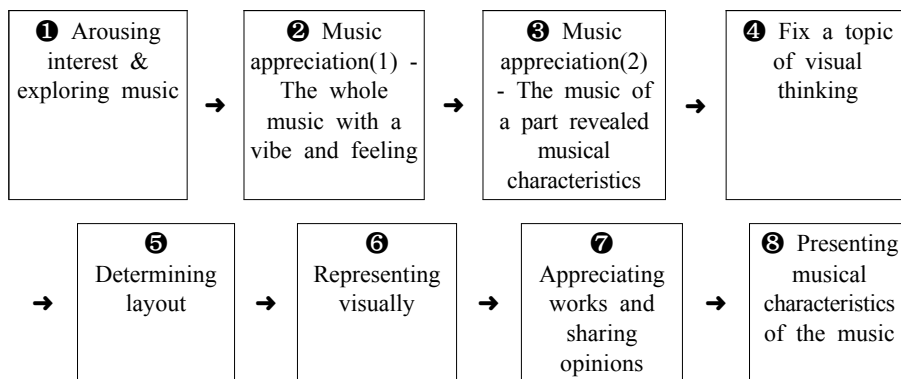
이상의 2015 개정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감상 영역의 활동은 단순히 음악을 수동적으로 감상하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해한 것을 표현해 내는 데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 개념의 이해에 관한 추상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음악 외적 방법’에 관하여 여러 음악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음악을 듣고 신체로 무엇인가 구분하여 나타내는 신체적 활동, 알게 된 것을 글(일기, 편지, 시 등)로 서술하여 나타내는 활동, 그림으로 자유롭게 그려보거나 마인드맵 등으로 구조화하여 나타내는 활동 등은 이미 음악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주얼 씽킹’은 느낌이나 개념에 관해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재 표현해보는 도구로서가 아닌, 음악 감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구별하고 구조화하여 레이아웃 속에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더욱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과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공감하고 발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감상 악곡과 활동에 따라 적절한 비주얼 씽킹 기법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감상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Ⅲ.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 감상 지도 방안

1.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 감상 수업 단계

초등학교 음악 감상 수업에서는 음악적 정보를 처리하고 그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심미적 감상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상하는 음악의 특성 또는 본질이 무엇인가?’와 ‘그러한 특성을 만들기 위해 그 음악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어떤 음악 요소나 개념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Kil & Rim, 2013). 또한 초등학생들의 음악 감상에서는 악곡에 따라 다양한 흥미 유발(악곡에 관한 에피소드, 주제 가락 감상, 작곡가에 관한 정보, 음악의 배경 살피기 등) 기법이 요구되며, 감상 시간도 학생들의 집중 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고, 감상 횟수 또한 감상의 관점에 따라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 등이 있다. 따라서 [Figure 1]에서 제시한 우치잡 외의 비주얼 씽킹 수업 단계를 바탕으로 음악 감상 수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단계를 [Figur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때, [Figure 1]에서 제시된 기존의 비주얼 씽킹 단계, 즉 ‘① 학습 주제 제시하기 → ② 핵심어 표시하기 → ③ 레이아웃 생각하기 → ④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⑤ 활동 공감 나누기’는 범 교과적인 측면에서 텍스트 위주의 학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에 음악 감상 영역의 학습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②의 단계는 삭제하고 이를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낼 주제 정하기’ 단계로 바꾸었다. 한편 음악 감상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즉 악곡에 관한 흥미 유발 및 음악 감상 과정을 추가하여 총 8개의 단계로 설정하고 [Figur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ure 3] Teaching stages of music appreciation using visual thinking

[Figure 3]의 수업 단계 중 비주얼 씽킹 기법이 적용된 단계는 ④~⑦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음악 감상 (1)과 (2)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⑧단계는 수업을 통해 감상 악곡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로서 의미를 두고 설정하였다.

여기에 나타난 감상 수업 단계는 초등학교 교실의 음악 감상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반영하여 나타낸 것으로, 성취기준, 수업 목표, 학생 실태, 감상 악곡과 주요 활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40분 단위 수업으로 모든 단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차시에 나누어 이러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수업 단계는 비주얼 씽킹 기법의 적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초등학교 감상 영역에서 다루는 여러 표현 매체(소리, 그림, 언어, 신체표현) 가운데 그림과 언어를 활용한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 초등학교 음악 감상 수업에서의 비주얼 씽킹 적용 예시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비주얼 씽킹 적용 음악 감상 수업 단계에 따른 수업 흐름과 학생의 비주얼 씽킹 예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시 자료 개발을 위하여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군의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을 기초로 하여 학년군별로 1개씩 총 2개의 감상 수업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하기

초등학교 음악 감상 영역에서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는 내용의 성취기준은 초등학교 3~4학년군과 5~6학년군 모두에 각각 나타나고 있는 성취기준으로, 감상 활동에서 양적으로도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3~4학년군을 대상으로 하여 생상스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를 듣고 악곡에 나타난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는 수업 예시안을 구성해 보았다.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감상 수업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 개관

- 주제: 음악의 빠르기
-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 성취기준: [4음02-0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2) 학습 목표

-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제3곡과 제4곡을 듣고 음악 요소(빠르기)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활동

① 흥미 유발 및 감상곡 살피기

- 악곡 탐색 및 공부할 문제 파악하기
 -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 작곡가 및 악곡의 구조(모음곡)에 관하여 알아본다.
 - ▶ 감상곡에 관한 정보를 나눌 때에는 학습 내용에 직접적인 암시가 되는 내용은 피한다.
 - 학습할 내용과 연결 지어 공부할 문제를 살펴본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제3곡과 제4곡을 듣고 음악 요소를 구별하여 표현해 봅시다.)

② 분위기와 느낌을 떠올리며 음악 감상하기

- 악곡 감상하고 분위기와 느낌 이야기해 보기
 -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제3곡 ‘당나귀’를 들어본다.
 -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제4곡 ‘거북이’를 들어본다.
 - 두 곡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 특정 음악 요소에 한정짓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음악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의 음악을 감상하기

- 악곡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
 - ‘당나귀’와 ‘거북이’를 각각 들으며 걷거나 뛰어본다.
 - ▶ 감상곡을 들으며 걷거나 뛰는 것은 학생들이 신체로 음악 요소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에 유의한다.
 - 두 곡에서 어떤 음악 요소가 구별되어 느껴지는지 이야기해 본다.
(예. 빠르기)
 - 빠르기가 빠른 것과 느린 것을 구별하여 이야기해 본다.
 - 주변의 현상이나 경험에서 이와 비슷한 것 떠올려 생각해 본다.

④ 비주얼 씽킹 주제 정하기

- 감상한 것과 관련하여 비주얼 씽킹 주제 정하기
 - 감상한 두 곡에 관하여 비주얼 씽킹으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악곡이 묘사하는 동물, 악곡의 빠르기 차이 등)
 -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하여 자유롭게 발표해 본다.
 -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낼 주제를 선정한다.
 - ▶ 주제는 앞선 감상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감상곡의 분위기나 음악적 특징을 포함하는 핵심 단어나 문장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⑤ 표현할 레이아웃 정하기

-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할 레이아웃 정하기
 - 다양한 레이아웃 종류 중 주제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생각해 본다.
 - 레이아웃의 상위/하위 구조를 각각 어떻게 할지 계획한다.

⑥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레이아웃에 주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학습한 내용을 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주얼 씽킹 카드'를 활용한다.
 - ▶ 비주얼 씽킹 카드는 짝/모둠 형태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풍부한 표현을 지원하도록 한다.
 - 적절한 크기와 색으로 디자인하여 표현한다.

⑦ 표현한 작품 감상하며 생각 나누기

-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자신이 만든 작품을 발표한다.
 -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생각을 확장해 보도록 한다.
 - 나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관해 이야기한다.
 - ▶ 수정할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한다.

⑧ 감상한 음악의 음악적 특징 발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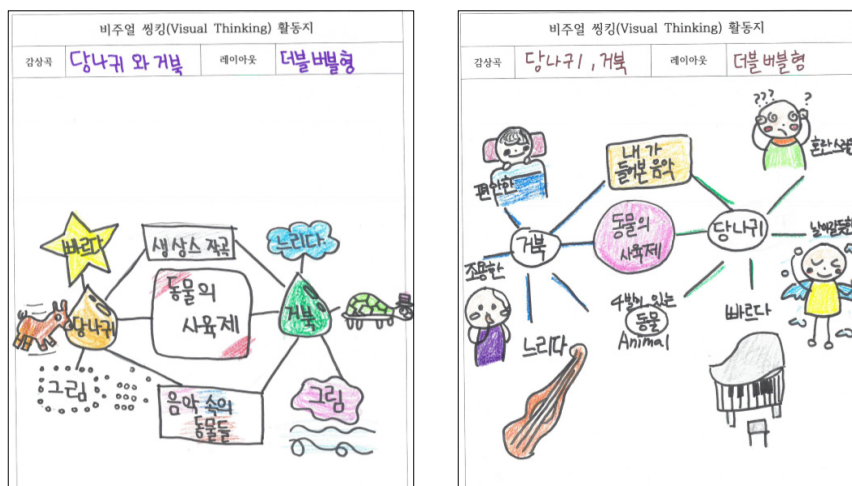
- 학습 내용 되돌아보기
 - 음악을 감상하고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며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본다.

(음악의 빠르기 등)

- 마지막으로 음악을 다시 한 번 감상해 보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 이 때의 감상은 앞선 감상과는 다르게, 학습한 내용을 되새기는 의미의 감상임을 주지하도록 한다.

이 수업은 3~4학년군의 음악 개념과 요소 중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중학년 학생들의 감상 활동에 적합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빠르기의 구별이 뚜렷한 ‘당나귀’와 ‘거북’을 감상 악곡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감상곡에 관한 정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흥미를 유발하고, 첫 번째 감상에서는 악곡의 표제 음악적 특성을 기반으로 악곡을 듣고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떠오르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감상 활동에서는 악곡에서 느꼈던 느낌이 어떤 음악 요소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걸으면서 듣는 신체표현 전략을 함께 사용하여 요소에 집중한 감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학생들이 흥미 유발 활동과 두 번의 감상을 통하여 알게 된 음악 요소나 악곡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였다. 이 때 레이아웃은 두 악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림과 글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되, 어려운 경우 비주얼 씽킹 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도 됨을 안내하였다. 본 수업에 관한 학생 작품 예시는 [Figure 4]와 같다.



[Figure. 4] Example work of 4th grade students
(interested in the tempo and tone color difference of two musics)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감상 수업 결과, 학생들은 '동물'의 특징을 나타낸 악곡의 표제 음악적 특징에 관심이 많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악곡의 차이를 결정하는 음악적 요소로 '빠르기(tempo)'를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두 악곡에서 주선율을 연주하는 악기의 음색(tone color - stringed instruments, piano)도 구별하여 표현한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단계에서 자신과 비슷한 표현을 했거나 생각하지 못한 다른 표현을 한 경우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비주얼 씽킹으로 그리니 재미있다.", "다른 음악도 더 감상해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주얼 씽킹 기법의 그림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려웠다.", "그림으로 표현할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는 비주얼 씽킹 기법의 적용에 있어서 '생각의 시각화'를 위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학생들이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 발표하기

이 수업 주제는 5~6학년의 성취기준 중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에 관한 감상과 음악적 특징에 관한 탐색은 이전 교육과정 시기부터 5~6학년군 성취기준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교과 역량 중 '문화적 공동체 역량'과도 맥락을 함께하면서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판단된다. 이 수업 주제에 비주얼 씽킹을 접목한다면 교과 역량, 타 교과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음악적 특징에 관한 탐색과 여러 정보에 관한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5~6학년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하고 특징을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는 수업 예시안을 구성해 보았다.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감상 수업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업 개관

- 주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 성취기준: [6음02-02]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다.

(2) 학습 목표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발표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활동

① 흥미 유발 및 감상곡 살피기

■ 악곡 탐색 및 공부할 문제 파악하기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들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
-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에 관해 사진 퀴즈로 알아본다.
- 학습할 내용과 연결 지어 공부할 문제를 살펴본다.

(세계 여러 지역의 민속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보고 음악의 특징을 발표해 보시다.)

② 분위기와 느낌을 떠올리며 음악 감상하기

■ 악곡 감상하고 분위기와 느낌 이야기해 보기

- 스코틀랜드의 전통 악기 백파이프로 연주하는 ‘용감한 스코틀랜드’를 감상한다.
 - 호주의 전통 악기 디저리두로 연주하는 ‘부후’를 감상한다.
 - 두 곡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 (‘용감한 스코틀랜드’는 힘찬 느낌이 난다, ‘부후’는 빠르고 경쾌한 느낌이 난다. 등)
- ▶ 감상을 할 때에는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동영상 자료와 음원 자료를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음악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의 음악을 감상하기

■ 악곡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 파악하기

- 아프리카 전통 악기 코라로 연주하는 ‘케도’를 감상한다.
- 아르메니아 전통 악기 카눈으로 연주하는 ‘트라블존 댄스’를 감상한다.
- 두 곡의 연주에서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본다.

(줄을 튕겨 내는 악기라는 것이 비슷하고, 악기의 생김새나 음의 높이, 울림이 다르다 등)

- ▶ 앞선 감상에서 좀 더 나아가 음악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비주얼 씽킹 주제 정하기

■ 감상한 것과 관련하여 비주얼 씽킹 주제 정하기

- 감상한 악곡에 관하여 비주얼 씽킹으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연주하는 악기의 다양함, 음악에서 느껴지는 느낌 등)

-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하여 자유롭게 발표해 본다.
-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낼 주제를 선정한다.
 - ▶ 주제는 앞선 감상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감상곡의 분위기나 음악적 특징을 포함하는 핵심 단어나 문장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⑤ 표현할 레이아웃 정하기

-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할 레이아웃 정하기
 - 다양한 레이아웃 종류 중 주제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생각해 본다.
 - 레이아웃의 상위/하위 구조를 각각 어떻게 할지 계획한다.

⑥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레이아웃에 주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학습한 내용을 글,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주얼 씽킹 카드’를 활용한다.
 - ▶ 비주얼 씽킹 카드나 감정 카드, 악기 사진 등 학생들의 풍부한 표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준비하도록 한다.
 - 적절한 크기와 색으로 디자인하여 표현한다.

⑦ 표현한 작품 감상하며 생각 나누기

-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자신이 만든 작품을 발표한다.
 -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생각을 확장해 보도록 한다.
 - 나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관해 이야기한다.
 - ▶ 수정할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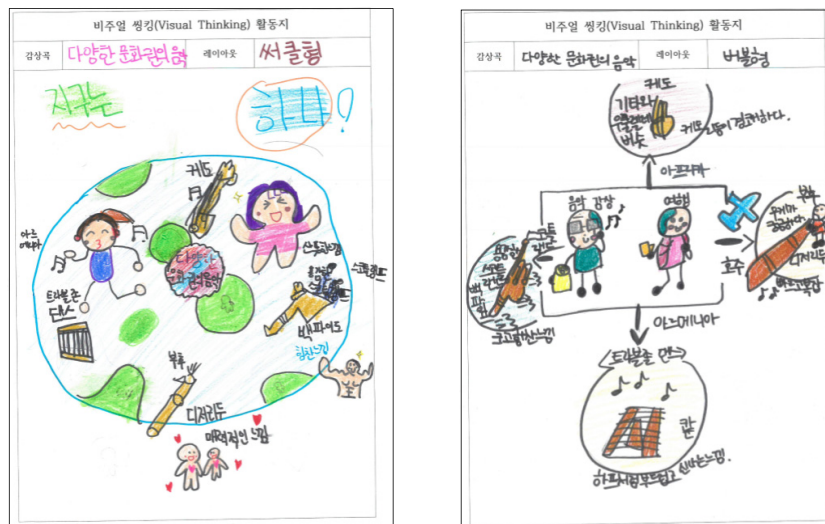
⑧ 감상한 음악의 음악적 특징 발표하기

- 학습 내용 되돌아보기
 - 음악을 감상하고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에 관해 알게 된 음악적 특징에 관하여 이야기해 본다.

(악기의 종류와 음색, 음악의 느낌과 분위기 등)

- 마지막으로 음악을 다시 한 번 감상해 보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 이 때의 감상은 앞선 감상과는 다르게, 학습한 내용을 되새기는 의미의 감상임을 주지하도록 한다.

이 수업은 5~6학년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은 문화적 배경, 지리적 위치, 음악의 기능과 쓰임 등에 따라 범주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와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제재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그 중 4개의 감상곡을 선택하여 듣고 알게 된 것을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두 번에 걸친 감상 활동에 있어 감상곡 4개를 한꺼번에 듣도록 하기 보다는, 연주하는 악기나 음악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2개 악곡씩 나누어 두 번의 감상 활동을 하면서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어 비주얼 씽킹으로 감상한 악곡에 관해 알게 된 점을 나타내어 보도록 하였다. 이때, 레이아웃은 학생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형태를 지정해 주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알맞은 레이아웃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수업과 관련된 학생 작품 예시는 [Figure 5]와 같다.



[Figure 5] Example work of 6th grade students
(interested in the appearance and weight of the instruments from various cultures)

수업 후 학생들의 비주얼 씽킹 활동 작품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은 악곡이 주는 느낌이나 악기의 생김새 등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악기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점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악기의 무게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하는 등 교사가 수업 계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세계를 더욱 가깝게 느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본 수업에 관해 “감상 수업 후 느낌을 글쓰기로 하는 것보다 비주얼 씽킹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다.”,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알게 된 것이 더 많아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상 곡이 너무 많아 기억하기 어려웠다.”, “악기 모양이 낯설어서 보고 그리는 것이 어려웠다.”, “비주얼 씽킹 레이아웃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음악 감상 활동과 비주얼 씽킹 기법의 접목에서 감상 악곡의 수나 학습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을 경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비주얼 씽킹의 다양한 레이아웃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시를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이 아닌,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에의 새로운 접근과 구조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에서 학생들이 발휘해야 할 창의력은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으로, 넘쳐나는 정보에서 핵심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힘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Jeong,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은 머릿속에 형성된 아이디어를 구조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비주얼 씽킹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최근 전 교과에서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생각 정리와 공유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음악과에서 감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를 깊고 넓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주얼 씽킹은 ‘생각의 시각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음악 감상 학습에서는 학

생들이 감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다양한 레이아웃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비주얼 씽킹을 음악 감상 수업의 적시에 적용하기 위한 학습 단계를 ‘흥미 유발 및 감상곡 살피기 → 분위기와 느낌 떠올리며 음악 감상하기(1) → 음악적 특징이 드러난 부분의 음악을 감상하기(2) → 감상한 음악과 관련된 비주얼 씽킹 주제 선정하기 → 표현할 레이아웃 정하기 →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표현한 작품 감상하며 생각 나누기 → 감상한 음악의 음악적 특징 발표하기’로 제시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3~4학년군과 5~6학년으로 나누어 성취기준 별 또는 수업 주제와 악곡에 따라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안 예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어떠한 방식으로 배움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였다. 학생들은 비주얼 씽킹의 여러 레이아웃 중에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고, 비주얼 씽킹 카드의 도움을 받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제시된 레이아웃과 비주얼 씽킹 카드의 표현 외에도 다양한 생각을 곁들여 감상 학습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며 생각을 확장시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의 시각화’라는 핵심 과정 속에서 그림 그리는 것에 관한 부담, 비주얼 씽킹의 여러 레이아웃과 표현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에 느끼는 어려움, 악곡의 단위와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 등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앞서 음악 감상이 감성적이며 소극적이며 추상적인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연 논리적 구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비주얼 씽킹 기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음악 외적인 부분이 음악적인 부분을 방해하지는 않을까와 같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감상 수업이 음악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형성과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 단순히 음악을 듣기만 하는 수용적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여 이해한 내용을 구별하고 표현해 내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주얼 씽킹 기법의 적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주얼 씽킹을 적용한 음악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음악적인 부분의 음악 외적 표현의 한계’, ‘적절한 감상 악곡과 활동의 선정’, ‘음악 활동과 비주얼 씽킹 표현의 조화와 균형’ 등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점차 음악 학습에서 비주얼 씽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어져 효과적인 음악 수업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 Coupland, D. (2008). Visual thinking: How I see words in my head. *Granta-London-Granta Publications Limeited-*, No. 101, 17-22.
- Dilek, G. (2010). Visual thinking in teaching history: Reading the visual thinking skills of 12 year-old pupils in Istanbul. *Education 3 To 13*, 38(3), 257-274.
- Glynn, S., & Muth, K. D. (2018). Methods and strategies: Using drawing strategically, *Science and Children*, 45(9), 135-144.
- Han, G. Y. (2019). *Development on invention gifted program using visual thinking*. Master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Housen, A. (2001). Aesthetic thought, critical thinking and transfer. *Arts and Learning Research Journal*, 18(1), 99-132.
- Jeong, J. H. (2019). *Anyone can do Jeong Jin Ho's visual thinking*. Seoul: Hanbitmedia.
- Joo, H. Y. (2018). *Study on Teaching · Learning Methods of High School Music Appreciation Area Using Visual Thinking*. Master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ng, M. J. (2018). *A study on the uses of visual thinking for review of historical learning*.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rakas, S. (2010). Creating and critical thinking in the arts and sciences: Some examples of congruence. *Forum on Public Policy*, 2010(2), 1-9.
- Kil, A. K., & Rim, M. K. (2013). *Elementary music teaching*. Seoul: Soomoondang.
- Kim, C. M. (2019). *Cham's visual thinking the final round boss*. Seoul: Edunity.
- Kim, H. J. (2018). A study on the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using visual think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87-104.
- Kim, J. E. (2018). *The effect of science classes applying visual thinking o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tudent*. Master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J. S. (2018). *A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an analysis of mathematical attitudes using visual thinking*.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N. L., & Kim, B. S. (2018). Systematization and application of visual thinking in elementary history learning.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25(2), 81-101.
- Kim, S. R., Choi, J. Y., Choi, J. E., Kim, Y. E., Jeon, H. H., & Lee, J. Y. (2018). *Visual thinking, tell the story*. Seoul: Ibirak.
- Kim, Y. H. (2018) The development of an interdisciplinary music and art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61-86.
- Ko, G. H. (2019). *A study of elementary mathematics teaching methods using visual thinking*.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acy, L. (1987). Thinking skills and visual literacy.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Microfiche Reports-ED*, No. 371-748, 33-40.
- Lavel, R. (1959). *Marcel duchamp*. New York, NY: Grove Press.
- Lee, H. S. (1990).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music.
- Lee, M. S. (2019). Recognition and prospect of visual thinking by pre-service secondary teachers in history education.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im, Y. D., Kim, B. H., & Kim, J. S. (2016). Development of free semester program in middle school using a visual think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6), 131-143.
- Ministry of Education(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 Moeller, M., Cutler K., Fiedler, D., & Weier, L. (2013). Visual thinking =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Phi Delta Kappan*, 95(3), 56-60.
- Oh, C. H. (2019). *A study on the model using flipped learning and visual thinking in highschool Korea history class*. Master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 On, E. J. (2018). *Visual thinking textbook for happy classroom lesson*. Seoul: Youngjin.
- Park, J. H. (2018). *A study on the visual language expression method and*

-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visual thinking capacity*.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 Park, S. J. (2018).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middle school music appreciation area using visual thinking*.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 Park, Y. M., Park, H. S., Jang, J. H., Jeong, M. H., & Lee, R. R. (2018). *Visual thinking card*. Seongnam: Sigongmedia.
- Seog, M. J. (2015). *Music learning program on schools*. Seoul: Kyoyookbook.
- Sim, H. J. (2019). *A study on modern poetry education method utilizing visual thinking - Focusing on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1st grader*. Master thesis, Chungnam University.
- Song, G. J., & Ma, D. S. (2018). A study on career education through visual thinking and social network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2(2), 275-284.
- Ware, C. (2005). Visual queries: The foundation of visual thinking.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No. 3426, 27-35.
- Ware, C., Gilman, A. T., & Bobrow, R. J. (2008). Visual thinking with an interactive diagram.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No. 5223, 118-126.
- Woo, C. G., Lee, M. H., Kim, J. H., Lee, Y. O., Kang, E. I., & Jeong, B. H. (2016). *Visual thinking class*. Suwon: Designpumpkin.
- Yang, G. L. (2018). *Development of music listening lesson plan using visual thinking*. Master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ceived: 29 November 2019, Reviewed (Revised): 1 January (5 January) 2020

Accepted: 14 January 2020, Published: 29 February 2020

Eun Ju Kim: E-mail: smileej1985@naver.com

Teacher, Gwangju Yangsan Elementary School, 33, Yeonyang-ro, Buk-gu, Gwangju, Korea